

# OECD 원조효과작업반 전체회의

## I. 회의개요

표제회의가 2011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주최로 원조효과작업반 멤버 대표 100여명, 박은하 국장, 김병원 부장, 김우중 부장, 허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이병원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지원과장, 이철 서기관, 홍상희 서기관, 최소정 서기관, 박주연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사무관, 이현주 KOICA 연구원, 임영재 KDI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됨.

## II. 주요내용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문서의 전반적인 방향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첫 번째 검토
- 부산총회가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 확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데 작업반 내 합의 도출. 부산 총회 결과문서는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성 관련 미완의 과제를 이행하는 부분과 함께 보다 신흥국, 민간분야, 기후변화재원 등 보다 포괄적인 개발 파트너십과 개발관련 이슈를 균형 있게 포함기로 결정 함.
- 대부분 작업반 멤버들은 신흥국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발 파트너십 구축과 실질적인 개발성과와 임팩트에 중심을 둔 한국의 ‘부산 글로벌 개발 컴팩트(Busan Global Development Compact)’ 비전에 대한 환영 및 지지의사 표명 함.
- 박은하 개발협력국장(전체회의 수석대표)이 선도발언(Korea's Kick-off Statement on Broad Partnership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및 DAC의장, 미국, 일본, EU,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의 부산 총회에 대한 비전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력 기반 구축하는 등 우리 대표단은 부산 총회 실질사항 뿐만 아니라 행사 준비 관련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부산 총회 주최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 함.
- ‘포괄적인 개발 파트너십’ 및 G20 개발 맥락과 같이하는 ‘개발효과성’ 논의가 부산총회 결과문서 핵심 축으로 반영됨으로써, 부산 총회에서 새로운 글로벌 컴팩트(a new global compact)을 이끌어 낼 전기 마련 함.
- 2011년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파리선언 이행 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반면, 파리선언 2차 평가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리선언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부산 총회에서 원조효과성 이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함.
- 주요 신흥국, 민간분야 등 기존 작업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 초청기로 함. 또한, 의장국인 한국이 주요 신흥 공여국과의 대화 창구로 역할을 해 줄 것과 G20과 연계방안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 함.